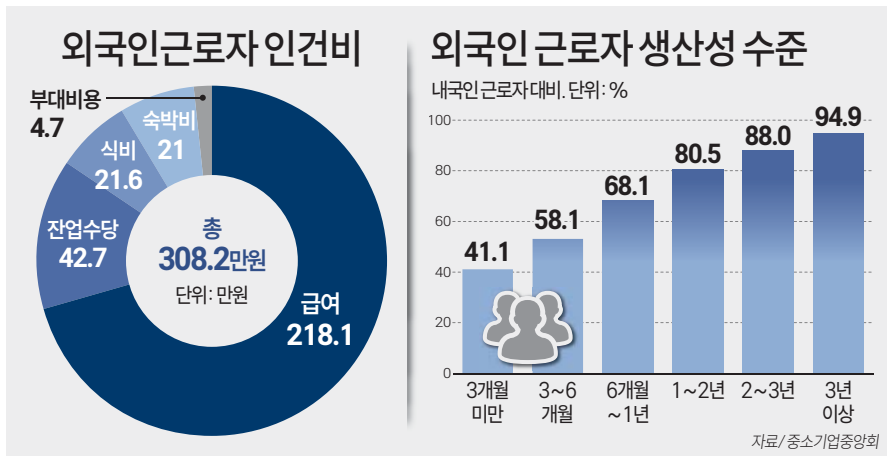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月 308만원… 생산성은 내국인 '절반'

〈평균〉

중기중앙회, 中企 1204곳 조사
외국인력 고용비용 지속 증가
입국 6개월 생산성 절반 미만
中企 92% "최소 3년 근무 필요"
숙련인력 이탈에 생산차질 우려
장기근속 유도할 지원책 요구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숙식비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훌쩍 넘고 있지만 생산성(6개월)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의 첫 근무지 적정 근무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생산성이 9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4년 10개월'(해당 비자 취업활동기간 3년+1회 최대 연장 1년10개월)간 직장을 옮기지 않고 근무한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04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급여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213.1만→216.5만→218.1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식비도 19.6만→21.2만→21.6만원으로 증가했다. 응답기업의 60.6%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국인 수준보다 '높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급여 218만1000원, 잔업수당 42만7000원, 부대비용 4만7000원 등 총 26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숙식비 42만6000원을 더하면 308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전엔 292만800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 중소기업의 92.1%는 생산성 확보, 고숙련 직무 배치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후 최소 '3년 이상'(3년 초과 70.3%+3년 21.8%)은 근무해야 내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56.8) ▲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6%)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43.8%) 등의 답변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의사소통'이었다.

실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0.2%) ▲인건비 부담'(28.2%)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6.1%)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의사소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심화(63.9% → 70.6%) 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발표가 예정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개편 방안과 관련해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력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1~2년) 이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1+2+3 순위)에 대해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94.7%), '대체인력 채용·교육비용 증가'(75.2%)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1+2+3 순위)으로는 ▲이직 사업장 대체인력 신속 알선(81%) ▲장기근속 근로자·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77.3%) 등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초기 낮은 생산성과 고용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에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내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소영 "국감 지적·주요과제 직접 챙길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공공기관 협의회 주재
11개 기관장과 내년 핵심과제 점검
정책협의회 반기별→분기별 확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특별시 중기부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사항과 내년도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소영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월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가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기관이 올해 성과와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선 올해 주요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또 조기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2027년 중점 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책자금·모태펀드의 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공정성,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온누리상품권 편법 거래, 기술탈취 피해구제 미흡,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대응의 한계, 정책대출 직후 폐업한 업체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중기부는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SDI, 美서 ESS 배터리 16GWh 수주

주피터파워와 수조원대 공급 계약
2029년부터 3년간 LFP 배터리 공급

삼성SDI가 미국에서 수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는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SDIA)가 미국 ESS 개발·운영업체 주피터파워(Jupiter Power)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오는 2029년부터 3년간 주피터파워의 미국 ESS 프로젝트에 총 16GWh(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기존 계약 물량까지 합하면 주피터파워와의 전체 수주 규모는 약 27GWh다.

주피터파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소유한 기업으로, 미국 내 최대 수준의 ESS 프로젝트 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에너지(SPE) 공장에서 생산한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해당 공장에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삼성SDI는 북미 내 유일한 비(非)중국계 각형 ESS 배터리 생산 기업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2조원 이상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과 1조 5000억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에도 미국 알파오메가 파워와 1GWh 규모의 ESS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패브리스 허드리 삼성SDI 미주법인 ESS팀장(부사장)은 "이번 수주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각형 LFP 배터리의 경쟁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별화한 각형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ESS 시장 공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중소벤처기업 AI 활용 수준 점검 지원

기보,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실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제2차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자가진단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진단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준과 전환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이평가 체계를 활용해 비교·분석하고, 그간 추진된 정부의 AI·AX 지원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 간이평가 체계는 기업이 AI 도입·활용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분석 보고서로 제공되며, 기업은 AX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가진단 과정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인 벤처협회는 전국 4만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기보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AX 성숙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인구감소지역 판로 확대

中企·소상공인 대상 기획전 개최

공영홈쇼핑이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돕는다. 16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92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 상품을 원재료로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영홈쇼핑 누리집의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 증빙서류(원재료 구매 거래내역 또는 원산지·생산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 상품은 전용 기획전에서 한 데 모아 판매한다. 기획전은 오는 12월1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며 해당 상품 구매 시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삼표시멘트, ESG 경영 4년째 'A등급 이상'

시멘트 업계 유일, 사회 부문 A+ 유지

삼표시멘트가 업계 최초로 ESG 전 부문에서 4년 연속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ESG 경영 노력을 대외에서 인정받았다.

삼표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최근 발표한 '2026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삼표시멘트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특히 사회 부문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SG 전 부문에서 4년 연속 A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업은 시멘트 업계에서 삼표시멘트가 유일하다.

삼표시멘트는 환경 부문에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생산공정 개선과 친환경 설비 확충, 친환경 저탄소 시멘트 브랜드 '블루멘트(BLUE MENT)' 개발 및 KS인증 확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